

# 참선곡

- 경허 대선사

홀연히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로다  
천만고 영웅 호걸 북망산 무덤이요  
부귀문장 쓸데 없다 황천객을 면할소냐?  
오호라, 나의 몸이 풀 끝에 이슬이요  
바람속에 등불이라

삼계대사 부처님이 정녕히 이르사대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사윤회 영단하고  
불생불멸 저 국토에 상락아정 무위도를  
사람마다 다 할 줄로 팔만장교 유전이라

사람되어 못답으면 다시 공부 어려워니  
나도 어서 닦아보세

답는 길을 말 하라면 허다히 많건마는  
대강추려 적어보세  
안고 서고 보고 듣고 착의각반 대인접화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몸둥이는 송장이요  
망상번뇌 본공하고 천진면목 나의부처  
보고 듣고 앉고 서고, 잠도자고 일도하고  
눈 한번 깜짝할제 천리 만리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묘용 분명한 나의마음

어떻게 생겼는고?

의심하고 의심하되 고양이 쥐 잡듯이  
주린사람 밥 찾듯이 목 마른데 물 찾듯이  
육 칠십 늙은과부 외자식을 잃은후에 자식생각 간절하듯  
생각 생각 잊지말고 깊이궁구 하여가되  
일념만년 되게하여 폐침망찬 할 지경에  
대오하기 가깝도다

홀연히 깨달으면 본래생긴 나의부처 천진면목 절묘하다  
아미타불 이 아니며 석가여래 이 아닌가?  
짧도않고 늙도않고 크도않고 적도않고  
본래생긴 자기영광 개천개지 이러하고  
열반진락 가이 없다

지옥천당 본공하고 생사윤회 본래없다  
선지식을 찾아가서 요연히 인가맞아  
다시 의심 없앤 후에 세상만사 망각하고  
수연방광 지내가되 반배 같이 떠돌면서  
유연증생 제도하면 보불은덕 이 아닌가?

일체계행 지켜가면 천상인간 복수하고  
대원력을 발하여서 항수불학 생각하고  
동체대비 마음먹어 빈병걸인 괘시말고  
오온색신 생각하되 거품같이 관을 하고  
바깥으로 역순경계 몽중으로 관찰하여  
해태심을 내지말고 허령한 나의 마음  
허공과 같은줄로 진실히 생각하여  
팔풍오육 일체경계 부동한 이 마음을  
태산 같이 써 나가세  
허튼 소리 우시게로 이날 저날 헛 보내고

늪을 줄을 망각하니 무슨 공부 하여볼까?  
죽을제 고통중에 후회한들 무엇하리  
사지백절 오려내고 머릿골을 쪼개는 듯  
오장육부 타는 중에 앞길이 캄캄하니  
한심참혹 내 노릇이 이럴 줄을 누가 알꼬  
저 지옥과 저 축생에 나의 신세 참혹하다  
백천만겁 차타하여 다시 인신 망연하다

참선잘한 저 도인은 서서죽고 앉아죽고  
얹도얹고 선세하며 오래살고 곧 죽기를  
마음대로 자재하며, 향하사수 신통묘용  
임의쾌락 소요하니 아무쪼록 이 세상에  
눈 코를 쥐어 뜯고 부지런히 하여보세

오늘 내일 가는 것이 죽을 날에 당도하니  
포주간에가는 소가 자육자육 사지로세  
예전사람 참선할제 마디 그늘 아꼈거는  
나는 어이 방일하며!  
예전사람 참설할제 잠오는 것 성화하여  
송곳으로 찔렀거늘  
나는 어이 방일하며!  
예전 사람 참선할제 하루 해가 가게 되면  
다리뻗고 울었거는  
나는 어디 방일한고!  
무명엽식 독한 술에 혼혼불각 지내가니  
오호라 슬프도다!

타일러도 아니 듣고 꾸짖어도 조심 않고  
심상히 지내가니 혼미한 이마음을 어이하여 인도할꼬  
쓸데없는 탐심진심 공연히 일으키고

쓸데없는 허다분멸 날마다 분요하니  
우습도다 나의 지혜 누구를 한탄할고?  
지각없는 저 나비가 불빛을 탐하여서 제 죽을줄 모르도다  
내마음을 못 닦으면 여간 계행 소분복덕 도무지 허사로세  
오호라 한심하다!

이 글을 자세보아 하루도 열두 때며 밤으로도 조금 자고  
부지런히 공부하소  
이 노래를 깊이 믿어 책상위에 펴 놓고  
시시 때때 경책하소  
할 말을 다하려면 해묵서이 부진이라  
이만 적고 끝내 오니 부디 부디깊이 아소  
다시 할 말 있사오니  
돌 장승이 아이나면 그때에 말하리라.